

90 年代의 創出

— 근면하고 誠實한 사람이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세상만들기 —

柳 騎 榮

時 評 家

세상은 누가 만드나?

옛날에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하늘의 뜻이라 생각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즉 왕조시대의 왕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 하여 천자(天子)라 일컫고 때문에 임금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 하여 이를 거역하는 사람을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자라하여 중벌로 다스렸다. 중국에서 천자사상이 싹튼 것은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요·순제(堯·舜帝)때 부터인 것 같고 이것이 청조(淸朝)가 망할때까지 약 4천년 동안 계속되었다.

하늘의 뜻을 천도(天道)라 하여 우리나라에도 이 사상이 뿌리깊이 내려졌는데 하늘의 뜻은 바르고 의(義)로운 것이며 사람은 이 길을 따라야 한다는 사상이다. 그래서 어진 임금을 성군(聖君)이라하고 성군은 하늘의 뜻을 따라서 정사를 바르고 의롭게 다스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시대를 태평성대(泰平聖代)라 일컬었다. 요순(堯舜)시대, 탕무(湯武)시대, 즉 우(禹)나라 탕왕(湯王)시대와 주(周)나라 무왕(武王)시대를 중국역사상 대표적인 태평성대라 하는데 우리나라 세종시대도 태평성대로 손꼽힌다.

그러나 근세 민주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이와같은 천도사상은 퇴색되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이 하늘의 뜻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시대성이 다르고 시대의식(意識)이 다르고 같은 시공속에서도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쪽저쪽에 세상이 판이하게 다르다.

세상은 누가, 그리고 무엇이 만드는 것인가. 사학자에 따라서 역사는 정신적 산물이다. 물질적 산물이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 즉 인류사를 말하는 입장에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란 생각할 수가 없다.

문제는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는가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2차대전중, 일본에서 당시 철학계에서 이름이 높았던 미키(三木清)라는 학자는 반전론자로서 군국주의집단에 의해 투옥되었다가 끝내는 옥중에서 사망했는데 그는 당시 주장하기를 군국주의자들이 세상을 형편없는 꼴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후에 출판된 그의 「철학노트」에 「세상을 만든다」라는 제목에서 이 대목이 나온다. 즉 역사는 어떠한 영재(英才)나 영웅, 집단이 세상을 자기네 생각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을 일삼아 터무니 없는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시대를 만든답시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민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통렬히 비난했던 것이다.

새로운 “낙원” 탄생설

시대는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러스카」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연구개발되고 치밀한 정부의 고도화된 정책과 그것의 강력한 추진력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뜻으로 암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법을 따르면 「플라톤」이 주장하는 정예체제(精銳體制)가 세상을 만들고 「토마스·홀」에 따르면 군주제가 세상을 만든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존·로크」가 내세운 민주제도는 따지고 보면 국민의 생각이 세상을 만드는 셈이다. 결국 어떠한 세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해가는 엘리트 집단, 군주,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만들어진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흥미있는 하나의 사실은 2차대전중에 이미 오늘의 기술시대를 예고한 학자가 있었다. 호주 태생이며 경제학, 철학을 연구한 「그넨홈·가루레기」라는 교수는 1947년에 「기술에 의한 새로운 낙원」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이것이 일본의 삼성당 문고판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의 「기술과 정치」라는 항목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다. 즉 앞으로의 역사는 과학기술이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과학과 기술의 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종전까지는 정치가 역사를 만들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정치의 발달에 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역사를 리드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정치는 보수적인데 반하여 과학기술은 혁명적이므로 정치가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기술의 지배하에 들기 때문이라는 이론을 펴고 있다.

그는 주장하기를 혁명적인 과학기술은 많은 나라들을 공업국으로 만들고 공업국은 공업국에 적합한 것으로 정치를 리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구넨홈」씨는 최초로 유럽공동시장(EC)의 창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알려진 학자이다.

전후40년, 세계가 걸어온 길을 돌아켜보면 “새로운 낙원”설은 들어맞는 것 같다. 기술에 의한 새로운 낙원은 일본이 그 대표적 표본을 보여주었고 선진공업국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개도국, 후발국들의 모두가 기술을 주축으로 한 “낙원”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사실 20세기 후반기는 과학

과 기술이 꽃핀 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에 의하여 세상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군사면에서는 엄청난 공포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우리들의 생활면에서는 여러가지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오고 있음이 사실이다.

「구넨홈」씨는 말하기를 「과학과 기술은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자연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와 다른 것은 자연을 대상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며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으로 본다면 다음시대를 만드는 자는 과학자, 기술자일지도 모른다.

양과 질(質)

아는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건설은 양적추구로 성장해 왔다. 정책면에서 양산지향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경제는 양의 세상을 만들었다. 따라서 질적면이 망각되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노동 모두가 양적 팽창이 있었던 반면에 질의 향상을 추반하지 못했다.

그런데 역경(易經)이 보는 세계관은 이원론이다. 음양의 조화로 하나의 “완성”(完成)이 탄생한다. 음양학설의 원리는 삼라만상은 음과 양으로 성립된다. 질을 음으로 보고 양을 양(陽)으로 본다면 우리경제는 미완성이며 80년대에 들어서는 질적추구로 전환했다. 「헤겔」의 정·반·합 이론과 같이 질·양의 합으로 우리경제의 완성단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모든 부문에서 질이 추구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 추구되는 정치, 국민 모두가 고르게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이러한 정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양질의 노동력,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선진조국상이다.

인식은 의식(意識)의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다. 따라서 의식개혁은 인식의문제와 연결된다. 어떤 세상을 추구하느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식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상식과 지식을 토대로한 의식의 질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의식개혁이란 바르지 않게 외롭지 않게 형성된 의식을 청산하자는 국민운동이다. 돈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고 의로운 것인가. 공무는 어떻게 집행

하는 것이 바르고 의로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의로운 삶인가. 가치관을 바르고 의로운 것으로 이끌어가는 운동이다.

옛부터 우리사회에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의 뜻, 즉 천도는 바르고 의로운 것인데 사람들의 천성이 바로 바르고 의로운 마음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바르고 의롭게 살자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스스로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기 마련이다. 의식개혁등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질적향상은 의식개혁이 전제가 된다. 부정불법이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 남이야 죽건 말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돈에 대한 그릇된 의식, 그릇된 권위욕 그릇된 출세욕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는 잘 살 수 있는 질의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고전을업수이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고전이란 인류가 수천년 세월 즉 긴 역사를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실험을 토대로 남겨진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고 있다. 이를테면 탕왕이나 무왕이 만들어내었던 세상,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추구하였던 세상, 진시황이나 히틀러가 만들려했던 세상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여상(呂尙) 태공망(姜太公)은 문왕의 자문에 답하기를 「천하(세상)는 한사람의 세상이 아니오 세상사람들의 세상」이라 일깨웠다. 고전적 민주사상이라 할 수 있다.

태공망은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 하였고 문왕의 아들 무왕이 이 사상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 역사에 남는 유명한 태평성대의 세상을 만들어 내었다.

90년대의 세상

근세에 와서 역사의 전개범포가 빨라진 것이 사실이며 60년대니 70년대니 하는 시대구분을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개념은 언제부터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2차대전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우리에게 이 같은 10년대 사용은 60년대부터 생활화 되었고 60년대는 근대화 추진시대, 70년대는 고도성장시대로 제2도약시대, 90년대는 원숙기시대 또는 선진화시대등으로 시대개념을 갖게 된 것 같다.

우리는 90년대에 많은 꿈을 걸고 있다. 80년대보

다 더 잘살 수 있는 시대, 경제발전이 더욱 원숙을 기하는 시대, 풍요한 시대등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90년대의 세상은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90년대는 눈앞으로 다가왔다. 거의 손이 닿는 거리에 와 있고 이미 피부로 느끼는 거리에 있다. 아니 이미 일부는 90년대에 접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90년대의 세상은 누가 만들며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옛날의 왕조시대나 군주시대 처럼 어떤 특정된 사람이나 특정된 집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나라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90년대의 세상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의식하던 의식치 않던 지금 90년대의 한국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90년대가 될 것인가. 물론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 국민의 염원과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세상도 달라지리라는 점이다.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여기에 하나의 가정을 내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방향의 실정이다. 둘째는 경제성장의 향배이고, 셋째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진도, 넷째는 국민의 의식구조, 다섯째는 국제정세의 동향이라 볼 수 있다. 질과 양의 조화가 90년대의 성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는 90년대를 만들어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어떠한 90년대가 만들어 질 것인가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90년대를 어떠한 바람직한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로 나아가야 하겠다. 한국사람은 누구나 90년대의 한국이 80년대 보다 더 살기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러한 꿈을 안고 지금 전 국민은 90년대 만들기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90년대의 세상은 물심(物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선진조국상”으로 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90년대 세상만들기에는 온 국민의 꿈은 의지와 노력으로만이 성취될 것이다.

*